**PANBINBIN 11/22**

**中, '한한령'으로 한류 전면 차단 임박…사드 배치 보복 강화**조성준 기자2016.11.21 11:21 조선일보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1/2016112101124.html
중국 당국이 한국 드라마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 등을 금지하는 ‘한류 금지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전면적인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는 19일 “역사상 가장 강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왔다. 모든 한국 기업과 한국 브랜드, 한국 연예인 등 어떤 한국의 특징을 함유한 광고도 19일부터 전면적인 금지에 들어간다”는 글이 퍼졌다.

같은날 홍콩 봉황망도 전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ID 웨이스관차성(衛視觀察生,위성TV 관찰자)에 “장쑤(江蘇)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 사태가 긴급하다. 방송사 모두 행동에 들어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봉황망은 이날 기사에서 중국 당국이 TV는 물론 인터넷 동영상에도 한국드라마 영화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종합예술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중국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공식 문서로 전달하진 않았지만 각 위성TV 책임자들에게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위성TV 관계자들은 “소식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통지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사 책임자들은 이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傳媒圈)에 따르면 이번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다.

규제 대상은 한국 기업·브랜드·광고모델 등 한국을 나타내는 모든 요소이며, 심지어 한국 축구선수와 감독에도 적용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이같은 한한령 움직임은 그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한한령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어서 한중 간 콘텐츠 투자 교류 위축은 물론 국내 한류 관련 연예사업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闺蜜门危机深化之时， 进一步加强韩流的审查，可见中国醉翁之意不在酒。是要进一步给萨德的配置增加压力。但值得讨论的是两国交流的领域很多，为何从韩国文化开始限制呢？）

이미 지난 8일 배우 송중기가 중국산 스마트폰 VIVO의 신형 모델인 ‘x9’ 광고에서 중국 영화배우 펑위옌(彭于晏)으로 교체됐으며, 한·중 공동 투자로 제작된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은 끝내 중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주 한국 단독 방영을 시작했다.

중국 화장품 업계도 비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송중기를 모델로 채용했던 프로야(珀萊雅·PROYA), 김수현의 한허우(韓後), 송혜교의 쯔위안(滋源), 안재현의 훠취안(活泉) 등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당국의 불이익 조치를 피하기 위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중국판 ‘아빠 어디가’ 시즌 4를 촬영한 황치열의 출연 부분이 가위질당했고, 후난(湖南)위성방송의 한·중 합작 드라마 ‘상애천사천년(相愛穿梭千年)2’는 탤런트 유인나 출연 분량이 모두 삭제된 채 방영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보보경심 려’가 심의를 통과하고 사드 배치가 지연되면서 한한령 해제를 기대해 왔으나 이번 조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류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부 중국 인터넷매체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한한령과 연계하는 모양새다.

인터넷매체 즈청차이징(至誠財經)은 최근 ‘한한령 최근 소식 한국경제 다시 충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도 사드 배치를 고집해 한국 민중의 분노를 사고 있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및 중국의 한류 콘텐츠 관련 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영화업계 한 인사는 “이번 한한령이 공식 문서로 확정된다면 막 성숙 단계에 진입하려는 한·중 양국 간 문화산업 협력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각종 개별 프로젝트는 물론 양국 간 산업협력 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에 무역보복 경고한 中언론… "미국산 車·아이폰 판매 어려움 겪을것"**

방현철 기자 2016.11.15 03:06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5/2016111500251.html

### 환구시보 사설 "관세 45% 물리면 보잉 여객기, 에어버스로 바꿀것"

중국 관영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간에 통상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통상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국이 피해를 볼 것으로 진단했다.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물리면 양국 관계는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럴 경우 중국은 대응에 나서 보잉사에 주문한 여객기들을 에어버스로 바꾸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도 중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작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 보잉사와 300대 규모의 항공기 구매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환구시보는 "눈치 빠른 사업가인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순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역대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 전면적인 통상 전쟁을 감히 벌이지 못했다"며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쉽사리 중국에 통상 전쟁을 벌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 진영은 "45% 관세 논의는 와전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지만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들은 미·중 통상 전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최대 150일 동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WSJ는 13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무역정책으로 인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일본 다이와증권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떨어진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은 0.5%포인트 낮아진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WSJ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전했다.（无法预测是特朗普的特点， 环球时报过早给予评价是不合时宜的，环球时报要关注的是若发生贸易战中国会如何避免

；此外贸易战会对亚洲出口导向性的国家不利， 中国如何利用周边“受害国”的心理，进一步拉拢，从而抵消美国的围堵将会成为话题。）

**中, 北국경 1.5㎞에 여단급 주둔지 건설**김진명 기자2016.11.14 03: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4/2016111400160.html>

중국이 북·중 접경지대에 중국군 주둔 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RFA는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 당국이 지난 8월부터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룽징(龍井)시 카이산툰(開山屯)진의 촨커우(船口)촌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인민해방군 주둔지를 짓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과 마주 보는 접경 지역이다. RFA가 취재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현재 (주민들이 이주한) 그곳에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중장비와 자재들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소식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9군단(함북 주둔) 간부들을 통해 온성군 주민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RFA가 만난 룽징시 한 조선족 주민도 "앞으로 그곳(촨커우)에는 인민해방군 제16집단군 여단 병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마도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RFA에 인민해방군의 촨커우 주둔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最了解朝鲜的中国做出这样的举措，说明中国已经对朝鲜政权的突然倒台产生不安的心理，证实朝鲜政权危机的深化；此外也显示出中国对朝鲜半岛局势的关注度进一步提升。）

통상 북·중 국경에서 40㎞쯤 떨어진 곳에 머무는 중국군 정규 부대가 이처럼 북한과 가까운 곳에 주둔지를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중국 당국이 주둔지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는 촨커우촌에서 북·중 국경의 기준이 되는 두만강까지 직선거리는 1.5㎞ 정도에 불과하다.